

목장교회 나눔지

2022. 10. 2. 주간

독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5분/온라인모임 3분)

*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나누어 보세요.

1. 추수감사주일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2.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3. 잘못된 판단으로 길을 헤맨 경험이 있는가?

장 장맛비 같은 찬양(15분/온라인모임 5분)

독	은혜	찬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새찬 36장)
음	감사함으로 (지 217장)	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새찬 314장)
성	나를 지으신 이가 (지 437장)	가	예수 나를 위하여 (새찬 144장)
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지 33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찬 404장)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5분/온라인모임 30~40분)

지난 한 주간 지구촌공동체성경읽기, QT(매일성경, 새벽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Just Like Jesus 24 무엇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판단하는가? 요한복음 7장 25-36절

서론)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단 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독교 전통에 살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냥 믿는 신앙이 아닌 내가 믿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그룹(바리새인, 사두개인) 역시 종교적 형식에는 몰두했지만 참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믿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슬 1. 사람들의 판단들

교 1) 피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 (25-27절)

첫 번째 부류는 특이하게 예루살렘 사람들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25절).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장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알아보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야는 아니라고 확신했다(27절). 성경은 메시야가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승만을 믿어 메시야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처럼 성경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는 얕은 지식이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다.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아집이다.

교 2) 표적과 기적을 따라 예수를 판단하는 사람들 (31절)

또 한편의 무리는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표적과 기적을 높이 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놀라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 믿음이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야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기적을 보일 때는 환호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을 일삼는 부류였다. 기적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적만 사랑했다.

3) 헛된 추측이나 가정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사람들 (35-36절)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그때 유대 군중들은 엉뚱한 추측을 한다. 헬라인 중에 흠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기 때문이라 추측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추측이나 가정만으로 판단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에 “what if”라는 가정은 없다. 예수님은 현실 세계에 오신 분이다.

2.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

1) 하늘에서 내려와 땅으로 난자 /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처럼 당신은 땅에서 났지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신다(29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고 놀라는 수많은 기적과 권세 있는 말씀들의 출처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신 것이다.

2)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자 /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신 후에는 다시 오신 곳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즉,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3.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경비병을 보내 예수님을 잡으라고 지시한다. 그런데 군병들은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30절).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앞당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더 증거 하시기 위해서였다. 나 같은 자들이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너무도 역설적으로 주님의 때는 나를 기다려 주시는 때이다.

결론)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나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과 그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 익숙함을 가졌음에도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 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 권 계 제

점점질문 *설교의 주요 내용 점검

1.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룬 두 그룹은 무엇인가?
2.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3.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의 때”를 유보시킨 진짜 이유는?

